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㉑ 〈통록촬요〉의 출현과 그 의의



▶ 한줄 요약

'배불'이라는 시대적인 환경에서 〈통록촬요(通錄撮要)〉가 1529년에 숭묵(崇默)에 의하여 간행되는데, 전등의 법맥이 희미해져 가던 시대에 중국 찬술의 문헌을 수입하여 한국 선종의 인물을 보완하여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말법시대 정법안장 구현할 나옹 혜근"

1. 〈통록촬요〉의 출현

조선시대 선종의 상황은 배불정책이라는 시대적인 영향으로부터 초연할 수 없었다. 그 영향으로 조선 초기에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쇠퇴시기를 맞이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등법맥의 의식이 싹텄던 것이 주목된다. 그 일례를 들어보면 〈통록촬요(通錄撮要)〉가 1529년에 숭묵(崇默)에 의하여 전남 광양 백운산 만수암에서 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벽송 지엄(碧松智嚴, 1464~1534)의 발문이 붙어 있다. 본 문헌이 주목되는 것은 전등의 법맥이 희미해져 가던 시대에 중국 찬술의 문헌을 수입하여 한국 선종의 인물을 보완하여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통록촬요〉는 〈조원통록〉의 촬요로서 인도와 중국 및 한국을 아우르는 전등사서에 해당한다. 중국의 송 대에 촬요된 것을 해동에서 수입하여 새롭게 간행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통록촬요〉의 찬술자는 남송시대 말기인 13세기 중반에 〈대장일람〉의 편찬자인 복건성 영덕(寧德)의 우바새 진실(陳實)로 비정된다. 그러나 당시에 〈통록촬요〉라는 명칭이었는지, 혹 다른 명칭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해동에 수입하여 나름대로 그 구조 및 내용 등 몇 가지에 변형이 가해져서 〈통록촬요〉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간행한 인물로는 거기에 '후기'를 썼던 숭묵(崇默)으로 추정된다.

〈통록촬요〉의 근거가 되었던 〈대장일람〉 10권 가운데 제10권은 〈통록촬요〉의 구조 및 내용의 차이는 10여 가지에 이른다. 곧 권수, 품수, 인물의 수효, 칙명의 수효, 귀경게(歸敬偈)와 귀결게(歸結偈), 그리고 〈대장일람〉에만 수록된 인물과 〈통록촬요〉에만 수록된 인물 등이 그것이다.

〈통록촬요〉의 서지학적인 문제점 및 기타에 대해서 일찍이 고익진 교수가 논의한 글, 그리고 필자의 연구논문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행스럽게 우리말 번역은 두 종류가 출간되어 있다. 일찍이 고익진 교수는 신라인 34명의 수록은 기존 전등사서의 단순한 답습이 아니라는 점, 나옹 혜근에 대하여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촬요자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여 문록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이로써 〈통록촬요〉는 단순한 촬요서가 아니라 〈조원통록(祖源通錄)〉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국적 전등사를 의도하고 있음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평가하였다. 〈조원통록〉 24권은 전승되지 않지만 〈종록촬요〉가 바로 그에 대한 촬요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본 〈통록촬요〉에 상응하는 문헌으로 〈가흥대장경〉 제21책에 수록되어 있는 〈대장일람(大藏一覽)〉 10권에 수록된 내용이 유통되었다. 〈대장일람〉 10권의 중간본에는 만력 갑인(1614) 초겨울에 한림원 시독학사 수수(秀水) 진의전(陳懿典)이 학포헌(學圃軒)에서 쓴 서문이 붙어 있다. 때문에 중간본은 조선에서 개판된 〈통록촬요〉(1529)보다는 늦은 시기이고, 진실이 13세기 중반에 편찬한 것보다는 약 300여 년 뒤의 것에 해당한다.

이로써 보면 중국에서는 이미 〈조원통록〉 24권에 대한 촬요서가 13세기 중반, 곧 1118년부터 1270년 사이에 〈통록촬요〉 혹은 그 어떤 명칭으로 만들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일람〉 10권은 서두에 진의전이 쓴 '서문'이 붙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10권, 8문, 60품, 1181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장일람〉 제10권에 해당하는 제팔종설문지여(第八宗說門之餘)에 종안품(宗眼品), 정전품(正傳品), 방출품(傍出品), 분파품(分派品), 산성품(散聖品), 오통품(流通品)으로 분류된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조선 초기에 숭묵에 의하여 새롭게 간행된 〈통록촬요〉 4권은 제일 종안품, 제이 정전품, 제삼 호현품, 제사 산성품, 제오 유통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구성은 품명과 수록된 칙의 내용 및 수록된 인명 등에서 〈통록촬요〉 4권은 〈대장일람〉의 권10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로 보자면 기존에 중국에서 찬술되었던 〈대장일람〉의 제10권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새롭게 간행하면서 중국의 선사를 기록한 대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선별을 가하고, 다시 한국의 선사들에 대한 부분을 첨가하여 '후기'를 붙여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통록촬요〉의 특징

① 우선 권수에 대해서 〈대장일람〉의 경우에는 1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통록촬요〉의 경우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권수를 나누었는가 하는 점은 보이지 않는다.

② 품명에 대해서는 〈대장일람〉이 6품인 것에 비하여 〈통록촬요〉는 종안품 · 정전품 · 호현품 · 산성품 · 유통품의 5품이다. 곧 종안품과 정전품의 경우는 동일하고, 〈대장일람〉 방출품과 분파품의 둘이 〈통록촬요〉에서는 호현품 하나로 되어 있다. 이하 산성품과 유통품의 경우도 동일하다.



나옹 혜근 선사 진영.

배불 시기에도 전등법맥 의식 싹터
1529년 숭묵 의해 〈통록촬요〉 간행
중국 문헌에 한국선종 인물 보안해
나옹 혜근의 위상을 확고하게 부각

③ 종안품 4칙과 정전품 37명과 유통품 2칙에 수록된 칙명 및 인명은 동일하다. 다만 〈대장일람〉의 경우에 방출품과 분파품으로 나뉘어 있지만, 〈통록촬요〉에서는 그것에 해당하는 대목이 호현품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 수록된 인물의 숫자에 출입이 있다.

④ 〈대장일람〉의 경우는 고려의 도봉혜거(道峰慧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51명의 중국인물로 채워져 있지만, 〈통록촬요〉는 호현품을 통하여 〈대장일람〉에는 보이지 않은 인물로서 신라 및 고려인 34명이 새롭게 수록되어 있다. 이 점은 〈통록촬요〉가 한국에서 간행되면서 중국의 인물을 축소시키고, 대신 한국의 인물을 널리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⑤ 그 구체적인 인물의 숫자는 〈대장일람〉의 경우 인명은 총 154명이고, 〈통록촬요〉의 경우는 총 132명이다. 구체적인 분포는 다음과 같다. 〈대장일람〉의 경우 정전품에 33명이 있고, 방출품에 24명이 있으며, 분파품에는 남악파가 45명이 있고, 청원파가 46명으로서 91명이 있는데, 91명 가운데 중국인이 90명이고, 고려인으로는 도봉 혜거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산성품에 6명이 있다. 〈통록촬요〉의 경우 정전품에 33명이 있고, 호현품에 93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국인이 59명이고, 신라 및 고려인이 34명이다.

⑥ 칙명의 경우는 모두 6칙씩으로 동일하다. 곧 종안품에 4칙이 있고, 유통품에 2칙이 있다.

⑦ 〈대장일람〉과 〈통록촬요〉가 칙명에는 차이가 없이 동일하지만, 인물에서는 그 숫자에 차이가 있다. 그것은 종안품과 정전품과 산성품과 유통품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일람〉의 경우 방출품과 분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록촬요〉의 경우 특히 호현품 사이에서 나타난다. 곧 〈대장일람〉의 방출품과 분파품을 합한 것에 해당하는 중국인 114명(고려인 1명 제외)이 〈통록촬요〉의 호현품에서는 93명(중국인 59명, 신라 및 고려인 34명)으로 줄어 있다. 이 점은 중국의 인물을 줄이는 대신 한국의 인물을 첨가한 점은 분명히 〈통록촬요〉가 한국에서 새롭게 간행되었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⑧ 〈통록촬요〉에서는 〈대장일람〉에 수록된 중국인 114명 가운데서 55명을 제외하고 대신 신라 및 고려인 34명을 수록하였다.

⑨ 또한 〈대장일람〉에는 없지만 〈통록촬요〉에만 수록된 사람은 48명으로서 신라 및 고려인이 33명(34명 가운데 신라 및 고려인 가운데 도봉 혜거 1인은 중복됨) 추가되어 있고, 중국인은 15명이 추가되어 있어서 총 48명에 해당한다. 곧 〈대장일람〉에는 없는 중국인이 〈통록촬요〉에 추가된 인물은 석공 혜장, 자옥 도통, 중읍 홍은, 총인, 담주 용산, 규봉 종밀, 우두 혜충, 조과 도림, 초현 회통, 고정간, 보응 성념, 분양 선소, 영명 연수, 오운 지봉 등 15명이다. 그 이유는 추가된 중국인의 경우 〈대장일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⑩ 〈통록촬요〉에서 자체의 목차와 그 내용을 비교해보면 내용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목차에는 누락되어 있는 인물이 북종수대사 등 7명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7명을 포함시켜 통계를 잡았다.

⑪ 〈대장일람〉의 6품 및 〈통록촬요〉의 5품 등 모두 각 품마다 '귀경게' 내지 '귀결게'가 2구의 형태로 갖추어져 있다. 다만 〈대장일람〉 방출품의 '귀경게'가 〈통록촬요〉 호현품의 '귀경게'와 동일하고, 〈대장일람〉 분파품의 경우만 2구의 형태로써 새롭게 추가되어 있다.

이처럼 〈대장일람〉과 〈통록촬요〉는 구조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비교하자면 전체적으로는 거의 그대로이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보인다. 이것은 곧 오늘날 보이는 〈통록촬요〉의 촬요자는 진실(眞實)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새롭게 간행한 사람이 분명히 한국의 어떤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3. 〈통록촬요〉의 한국 간행과 그 의의

〈통록촬요〉에 수록된 인물의 내용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특이한 것은 고려의 보제존자 나옹혜근에 대한 기록이다.

또한 보조 지눌 및 태고 보우 등에 대한 기록은 언급조차 없고, 유독 나옹에 대해서만 이토록 심도 있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통록촬요〉가 간행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조선 초기에 선종의 전등법맥이 나옹 혜근 정통설로 계승되는 일군의 사람에 의하여 간행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그럼으로써 〈통록촬요〉의 전체적인 성격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나옹에 대한 기록이 분량으로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 단순히 한 사람의 인물로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록촬요〉의 보제존자 나옹 혜근장 말미에는 나옹이 가섭의 후신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치성광명경에서 말한다. 세존께서 가섭존자에게 고하여 말했다. '내가 멸도한 이후 후오백세에 내 정법안장은 곧 신라로 갈 것이다. 5종의 외도가 성행하는 세상에서는 감히 내 정법안장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경신 연간에 어떤 비구가 대사문이 되어 대불사를 일으키고 모든 외도를 타파할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제 나옹이고, 그 법회의 이름은 공부선(工夫選)이다. 가섭이여,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 후신이 바로 그 보제 나옹이다.'"

여기에는 말법시대에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한국으로 전승된다는 예언이 드러나 있다. 이에 의하면, 그 말법시대의 말겁이 다한 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10세로 한정되는 시대에는 견문각지식심외도(見聞覺知識心外道) 등 5종의 외도가 치성한다는 것이다. 그들 외도가 마치 삼대와 좁쌀알처럼 많아서 감히 내 정법안장을 파괴하기 때문에 여래가 재삼 거듭해서 나옹존자의 모습으로 화현하여 마침내 공부선(工夫選)의 법회를 통하여 정법안장을 전승하고 불국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와 같은 나옹의 위상에 대하여 중국에서 출현한 〈대장일람〉 제10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전등사서의 간행에 즈음하여 반드시 고려의 나옹의 전법상승의 필연성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경전의 인용과 더불어 그 당위성을 제시해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나옹은 곧 고려까지 계승되는 전법상승의 주장을 위해서도 전등사서의 성격을 지닌 본 〈통록촬요〉를 통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인물이었다. 그 결과 주목되는 것이 바로 그 전등사서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보제존자 나옹 혜근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불조의 혜명과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단절되지 않도록 후대에 전승하여 주지(住持)토록 하는 전등사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말법시대에 이르러 보제존자 나옹 혜근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런 만큼 한국에서 간행된 〈통록촬요〉는 나옹의 행장을 비롯하여 정법안장의 전승자로서 나옹의 위상을 확고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이 주목된다.

〈동국대 HK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사)대한불교 연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지 명

사서실장 현월 호계원장 범정 포교원장 정각 문화원장 삼공
감찰원장 승훈 교육원장 법성 법사원장 덕행 기획원장 지호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 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총무원장 : 지명 혜광 HP : 010-7109-3111
총 본 산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상동로 465-11 전화 : 054-481-3110 팩스 : 054-481-3123

문화관광부 등록 종단임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